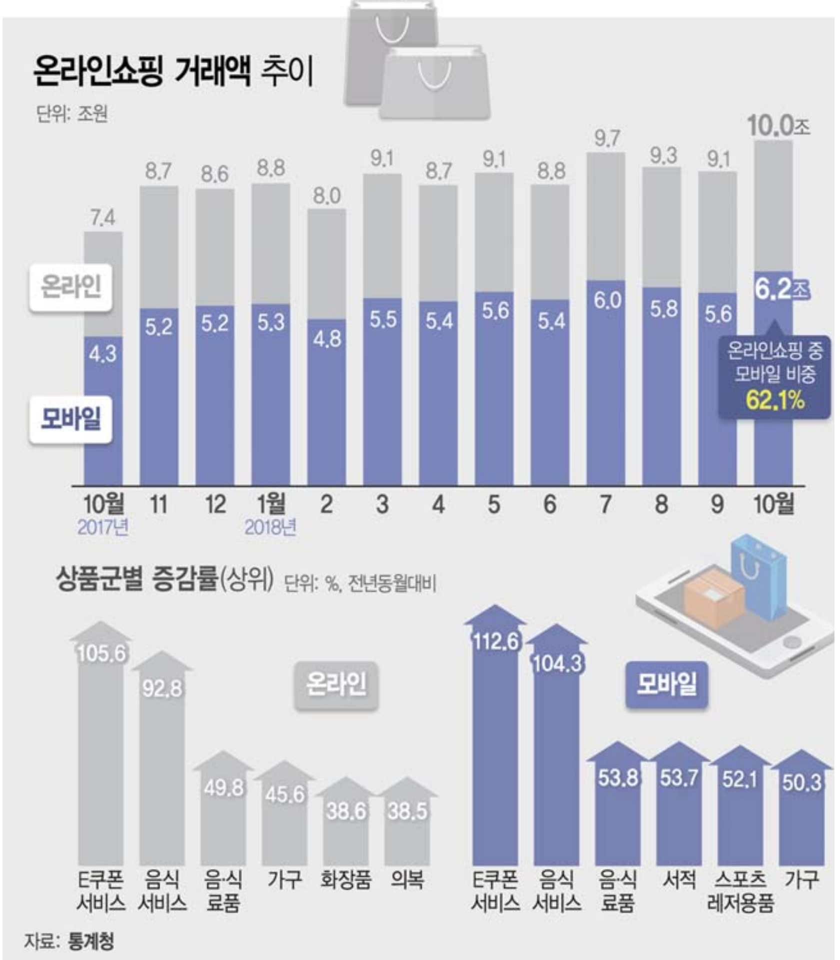
온라인쇼핑 거래액 10조원 '돌파'

통계청,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

"작년 황금연휴 기저효과 36.0% 이례적 증가"
빨리 추워진 탓에 방한 의류 및 가전 거래 늘어
외국인 관광객 늘어 온라인면세점↑…화장품↑
모바일도 첫 6조원대…배달·상품권 비중 높아



자료: 통계청

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규모로 불어나 처음으로 10조원대에 진입했다. 음식 배달이나 상품권의 비중이 높은 모바일쇼핑 거래액 규모 역시 최초로 6조원을 넘겼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4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0%(2조6567억원) 늘었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지난해 1월 이후 월별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폭염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9조6807억원)를 기록한 후 8, 9월 내리 감소하다 지난달 크게 불어났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사상 최대다.

1년 전 추석 연휴 기간보다 택배 일수가 5일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증가율이 22.5% 정도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전년 동월 대비 36.0%나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추석이 열흘간 장기적으로 지속돼 택배 거래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올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9~10월 두 달을 합친 온라인쇼핑 거래액(19조1663억원)을 1년 전과 비교하면 25.3%로 10월 한 달만의 증가 폭보단 작은 수준이다.

여행 및 교통, 문화 및 레저, e-쿠폰, 음식 등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부문에서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조784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매판매액(40조2877억원)의 19.3%를 차지한다.

상품군별로 보면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간편식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공산품, 김치 등 음·식료품 거래액의 증가 폭(49.8%)이 두드러졌다.

추위가 비교적 빠르게 찾아온 탓에 방한 의류, 방한 가전 등의 거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미세먼지 우려에 따른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제품 판매도 증가했다. 이에 의복(38.5%)과 가전·전자·통신기기(38.2%) 등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 부문 거래액은 1조3301억원으로 상품군 중 거래액의 절대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온라인면세점 거래도 늘었다. 이에 화장품(38.6%)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으로 거래되는 'e-쿠폰서비스'의 증가율이 105.6%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불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3월과 8월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e-쿠폰서비스 거래액의 절대 규모(2025억원)는 작지만,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를 의미하는 '음식서비스' 증가율도 92.8%로 크게 늘었다. 지난 7~9월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모바일 이용이 보편화되고 간편결제 서비스도 발전하면서 모바일로 이뤄지는 거래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로 이뤄진 금액은 6조23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11억원(43.8%) 불어나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1%로 1년 전(58.7%)보다 4.5%p 늘었다.

다만 지난해 황금 연휴를 고려해 9~10월을 합친 거래액을 보면 증가율은 33.7%에 그쳤다.

상품군별 모바일 거래의 비중을 보면 음식서비스(90.9%), e-쿠폰서비스(83.2%), 아동·유아용품(74.9%) 순으로 높았다.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e-쿠폰서비스(112.6%), 음식서비스(104.3%), 음·식료품(53.8%), 서적(53.7%), 스포츠·레저용품(52.1%), 가구(50.3%) 등이 두드러졌다.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는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주로 하고 주문 기능이 있는 온라인쇼핑 운영 업체 약 1000개를 대상으로 매월 이뤄진다. 표본 개편으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시기는 2017년 이후부터다.

뉴시스

"반려견 양육비 월10만3천원 고양이는 2만5000원 덜 들어"

KB금융그룹 '2018 반려동물 보고서' 조사결과
양육동물은 개 75.3%로 최다…고양이는 31.1%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데 월 10만3000원이 들어 반려묘 양육 비용 월7만8000원보다 2만5000원 더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월평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가구당 평균 1.3마리) 12만8000원, 반려묘(가구당 평균 1.5마리) 12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리당 환산할 경우 각각 10만3000원, 7만8000원이 지출된다. 둘다 양육할 경우 23만8000원을 쓴다.

이는 KB금융그룹이 지난달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4가구당 1곳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양육하는 동물은 '개'가 75.3%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는 31.1%로 절반을 못미쳤다. 그외 관상어(10.8%), 햄스터(2.8%), 토끼(2%), 새(1.6%) 등을 기른다.

반려견과 반려묘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와 간식비 등 식품이었다. ▲사료비(반려견 90.1%, 반려묘 93.3%) ▲간식비(81.4%, 81.5%) ▲의료비(63.4%, 48.7%) ▲일용품(48%, 48.7%) 등의 순서를 차지했다. 반려견은 미용비 비중이 45.1%, 반려묘는 장난감 구매가 37.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폐쇄회로(CC)TV와 사물인터넷(IoT) 이용료(4.8%, 1.7%) ▲돌봄대행서비스(3.5%, 1.7%) ▲보험료(4.1%, 4.2%) 등은 지출항목에서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견종은 '몰티즈'로 조사됐다. 몰티즈(23.9%), 푸들(16.9%), 시추(10.3%), 포메라이안(9.3%) 등 순으로 양육 비율이 높다.

고양이 품종은 '코리안숏헤어'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코리안숏헤어(45.2%), 페르시안과 러시안블루(18.4%), 샴(1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 만족도는 반려묘가 반려견보다 높았다. 반려묘 양육가구는 36.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데 반해 반려견 양육가구는 24.6%만 같은 답을 했다. 단 '만족한다'는 비중은 반려묘가구가 87.4%, 반려견 가구가 85.7%로 비슷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반려묘가 더 길었다. 반려견은 4시간52분, 반려묘는 6시간2분 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

집에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해 전자제품을 구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려견 가구 67.7%, 반려묘 가구 60.5%가 자동먹이장치, TV나 조명센서, IoT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KB금융그룹은 "반려동물 사료시장이 연평균 19% 성장하고 용품시장도 최근 5년간 월평균 지출액이 9.6%씩 증가하는 등 성장이 기대된다"며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도 연평균 15% 성장해 동물병원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 연하우표 발행

금박·홀로그램박·엠보싱 넣은 아기돼지 모습 담아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강도현)은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기념우표 2종 67만 2천장 및 소형 시트 11만장을 지난 3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이다. 오행에서 '기(己)'자는 흙의 기운을 표현하며, 색으로는 노란색이라 하여 누런 돼지, 황금돼지라 부른다.

우표는 금박과 홀로그램박, 엠보싱을 넣어 설빔 입은 아기돼지와 눈맞는 아기돼지 모습을 담아 풍요와 희망을 표현했다.

강도현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재물과 행운의 상징인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희망이 가득한 기해년(己亥年)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광주·전남 주식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감소했다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전월 3억3012만주에서 3억2912만주로 100만주(0.30%)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2조8631억원에서 2조5654억원으로 2977억원(10.40%)이 감소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